고즈넉한 쉼이 있는 여행

가을색이 짙어가는 10월,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은 특별한 곳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은 어떨까? 맑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산속 오지마을, 지나온 세월을 오롯이 간직한 고즈넉한 고택, 번잡한 속세에서 벗어난 고요한 산사.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오롯한 쉼이 그곳에 있었다.

[일러스트레이션 ⓒ 조]

학소대에서 바라본 맹개마을. 거칠게 내려오던 강줄기가 학소대를 돌아 완만해지면서 흙을 실어 놓는 곳에 맹개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1

자연을 벗 삼아 느리게 사는 삶

안동 맹개마을

푸른 하늘을 머리에 인 기암절벽, 내리쬐는 햇살에 반짝이는 낙동강의 은빛 물결, 너른 메밀밭을 한가로이 뛰노는 거위들… 안동 맹개마을에서 보낸 하루는 오롯한 휴식이었다. 맑은 자연을 그대로 담은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느리게 사는 삶을 잠시나마 누려봤다.

글 김희선 · **사진** 전수영 기자

안동 도산서원에서 청량산까지 낙동강을 따라 이어지는 오솔길은 퇴계 이황(1501~1570)이 어린 시절부터 즐겨 다녔던 길이다. 1564년 어느 날, 퇴계는 13명의 지인을 초대해 도산서당에서 청량산으로 향하면서 맹개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친구인 이문량에게 시를 써 보냈다.

산봉우리 봉긋봉긋, 물소리 졸졸,
새벽 여명 걷히고 해가 솟아오르네
강가에서 기다리나 님은 오지 않아
내 먼저 고삐 잡고 그림 속으로 들어가네

1

1, 2 맹개마을로 가는 길목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 트랙터나 배를 타고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
3 학소대와 맹개마을 사이에 우뚝 서 있는 바위. 퇴계는 이 바위를 경암이라 부르며 시 한 수를 읊었다.

2 [알파노뉴다 제공]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에 있는 맹개마을은 퇴계가 '그림 속으로 들어간다'고 읊었던 바로 그 마을이다. 기암절벽으로 이뤄진 청량산과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로 둘러싸여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답다. 비경을 품고 있는 이 마을은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오지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차를 타고 마을로 건너갈 수 있는 교각은 물론, 사람이 다니는 돌다리도 없다. 마을 주민은 14년 전 귀농한 박성호 씨(농업법인 밀과노닐다 대표) 부부와 그들의 지인 권선하 씨가 전부다. 지루했던 장마와 태풍이 지나고 가을 기운이 완연해진 9월의 어느 날, 맹개마을로 향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세 시간 넘게 달리니 청량산이 자태를 드러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절경이 탄성을 자아낸다.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산골짜기로 깊숙이 들어가니 농암종택이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온 박성호 대표가 종택 앞 강변 둔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맹개마을을 찾는 여행객은 박 대표가 몰고 온 트랙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엄청난 비를 뿌린 태풍 탓에 강물이 불어 배로 강을 건너야 했다. 맹개마을로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덜컹거리는 트랙터 대신 유유히 물길을 가르는 배 위에 몸을 싣고 퇴계가 읊었던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

맹개마을에 거의 다다르면 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를 만나게 된다. 흐르는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뒤를 돌아보니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장관이다. 청량산의 열두 봉우리 중 남쪽 끝자락에 있는 축융봉의 '학소대'다. 예로부터 학이 날아와 새끼를 치고 살았다고 해서 학소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거칠게 내려오던 강줄기가 학소대를 돌아 완만해지면서 흙을 실어 놓는 곳에 맹개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퇴계는 학소대와 맹개마을 사이에 우뚝 솟은 바위를 경암이라 부르면서 버릇대로 시 한 수를 읊었다고 한다.

부딪는 물 천년인들 다할 날 있으련만
물 가운데 우뚝서서 기세를 다투누나
신생의 발자취란 허수아비 같은지라
어느 누가 이런 곳에 다리 세워 버텨보랴

[밀과노닐다 제공]

1 맹개마을의 터줏대감인 거위들이 메밀밭에서 한가로이 노닐고 있다.
2 메밀꽃이 만개한 맹개마을

뱃소리를 듣고 우리를 마중 나온 것은 거위 세 마리와 견공 토리였다. 박 대표와 함께 마을을 지켜 온 터줏대감들이다. 오랜만에 찾아온 외지인이 반가운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멍멍' '꽥꽥' 목청을 높인다.

배에서 내려 마주한 마을의 모습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산속에 포근하게 안긴 메밀밭은 이제 막 하얀 꽃망울을 드문드문 터뜨리기 시작했다. 예년 같으면 9월 초순 메밀꽃이 만개하지만, 올해는 길어진 장마 탓에 파종이 늦어져 9월 말이나 10월 초에나 새하얗게 뒤덮인 꽃밭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 드넓게 펼쳐진 메밀밭 주변에는 몇 채의 건물이 띄엄띄엄 들어서 있다. 마을을 찾은 여행객이 묵어가는 펜션 '소목화당'과 박 대표 부부의 보금자리인 흙집, 수확한 밀과 메밀을 저장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밀그리다' 공방, 밀로 빚은 술을 숙성시키는 토굴 '술 그리다', 농가 음악회가 열리는 돔하우스… 이 모든 것에는 박 대표가 맹개마을에서 보낸 14년의 세월이 녹아 있다.

1,2 매년 6월과 9월 농가음악회가 열리는 돔하우스. 박성호 대표가 나무와 비닐을 사용해 직접 지은 것이다.

3 여행객이 묵어가는 소목화당
4 소목화당이라는 이름은 맹개마을에서 재배되는 작물인 밀(소맥), 메밀(목맥), 목화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5 맹개마을에서 수확한 유기농 밀로 만든 천연발효빵

도시 생활 훌훌 털고 자연 속으로

서울에서 IT 관련 사업을 했던 박 대표가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은 2007년이다. 스트레스와 술에 찌든 삶에 염증을 느껴 다른 길을 모색하던 때였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발견한 맹개마을은 그의 마음을 단번에 앗아갔다. 당시 이곳은 수도는 물론,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척박한 땅이었다. 한때 이 마을에 살았던 대여섯 가구조차 불편을 견디지 못해 떠나고 쓰러져가는 초가 한 채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마을의 모습이 어쩌면 그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다.

[민과노닐다 제공]

서울의 사업체를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온 그는 버려진 초가를 베이스캠프 삼아 생활하며 마을을 하나하나 일궈나갔다. 한동안 산을 넘어 다니다 배를 만들어 강을 건넜고, 그 배로 자재를 나르면서 토굴을 파고 집을 지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에도 첫발을 디뎠다. 11월에 밀을 심어 이듬해 7월 수확하고 밀을 수확한 땅에 메밀을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방식이었다. 직접 재배한 유기농 밀로 빵을 만들고 술도 빚었다.

나무로 만든 집 '소목화당'은 5년 전부터 지인 권선하 씨와 함께 운영해 온 펜션이다. 맹개마을을 방문하는 이들을 위해 펜션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을 벗 삼아 느리게 사는 삶을 나누고 있다. 밀밭이 황금 들녘으로 변하는 6월과 메밀꽃이 새하얗게 마을을 뒤덮는 9월에는 농가 음악회도 열린다. 박 대표가 직접 설계해 나무와 비닐로 지은 거대한 돔하우스가 음악회 무대가 된다. 아쉽게도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음악회를 열지 못했다고 한다.

인근 예끼마을에 차린 양조장 맹개술도가

10년 전부터 시험 삼아 해 온 술 빚기에도 최근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인근 예끼마을에 양조장 '맹개술도가'를 차렸다. 쌀은 한 톨도 넣지 않고 직접 재배한 통밀만으로 증류식 소주를 만들고 있다. 조선 초 안동의 선비 김유가 집필한 요리서 '수운잡방'에서 찾은 제조법을 참고해 만든 술이다. 맹개마을이 낙동강 옆이라 허가가 나지 않아 인근 마을에 양조장을 냈지만, 숙성은 맹개마을에서 이뤄진다. 박 대표가 직접 언덕을 파서 만든 토굴이 자연 숙성고 역할을 한다.

문을 열고 토굴 안으로 들어서니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토굴 안은 1년 내내 12~17도의 기온을 유지한다고 한다. 항아리뿐 아니라 오크통 안에서도 소주가 익어가고 있었다. 위스키처럼 오크통에서 18년 숙성시킨 소주를 내놓는 게 박 대표의 목표라고 한다. 천천히 숙성해 오랜 기다림 끝에 맛볼 수 있는 술. 자연에 순응하며 느리게 살아가는 맹개마을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1 맹개마을의 언덕을 파서 만든 자연 숙성고 '술 그리다'
2, 4 100% 유기농 통밀로 빚은 증류식 소주가 항아리와 오크통 안에서 익어가고 있다. 3 박성호 대표 5 맹개술도가에서 빚은 술은 진맥소주라는 이름으로 시판된다.

1, 2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홍파주막으로 등장한 초가집
3 뒷산에 오르면 청량산을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너머로 농암종택이 한눈에 보인다. 4 햇빛에 반짝이는 낙동강의 은빛 물결

"약간의 불편과 느림을 감수하면
자연이 선사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맹개마을은 이곳을 찾는 여행객을 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해 놨다. 박 대표가 직접 수확한 유기농 밀로 천연 발효 빵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밀로 만든 술을 직접 증류한 뒤 용기에 담아갈 수도 있다. 마을을 휘감아 도는 낙동강에서 카약이나 낚시를 즐겨도 좋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홍파주막으로 등장한 초가집에 배를 깔고 누워 책과 함께 뒹굴거나 학소대를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강가에 앉아 그저 멍하니 자연을 바라만 보는 것. 이것이 이곳을 누리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푸른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는 아름다운 학소대 절벽, 내리쬐는 햇살에 반짝이는 낙동강의 은빛 물결, 푸른 메밀밭 위를 한가로이 뛰노는 거위들, 청아한 강물 소리와 어우러져 들려오는 온갖 풀벌레 소리와 새소리. 그저 바라만 봐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풍경이다.

오지 마을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 서쪽 산 너머로 해가 기울면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다. 캄캄한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과 반짝이는 반딧불이는 맹개마을의 밤이 선사하는 선물이다. 오늘 밤 이곳에 묵어가는 여행객은 우리 일행뿐. 소목화당에 옹기종기 모여 못다 한 담소를 나누며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이른 아침 눈을 뜨고 창밖을 내다보니 부지런한 거위들이 벌써 일어나 뒤뚱뒤뚱 풀밭을 산책하고 있다. 안개가 옅게 깔린 아침 공기가 사뭇 상쾌하다. 거위들을 따라 정원을 거닐다 뒷산 전망대에 올랐다. 어제 건넌 낙동강 줄기와 강 너머 농암종택이 저 아래 아스라이 보인다.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밀밭 너머로 학소대를 병풍처럼 두른 소목화당이 한눈에 들어온다. 평화로운 풍경을 마음속에 꼭꼭 눌러 담고 내려와 다시 배에 몸을 싣고 강을 건넜다. 어느새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었다.

2

110년의 역사와 숨결
전주 인재고택 학인당

오래된 고장에는 오래된 집이 있다. 오랜 세월 닳고 닳아 반들반들해진 대청마루, 그 위로 사뿐히 내려앉는 달빛,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따사로운 햇살… 고즈넉한 쉼이 그리울 때, 지나온 시간을 오롯이 품은 고택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은 어떨까??

글 김희선 · **사진** 전수영 기자

1 솟을대문을 열면 본채 앞 마당에 잘 가꿔진 정원이 펼쳐진다. 2 학인당 현판
3 정원에 우뚝 서 있는 소나무는 고택과 110년 세월을 함께했다.

전주는 두말이 필요 없는 고도(古都)다.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며 도읍으로 삼았고,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본향인 전주가 조선 왕조의 뿌리가 됐다. 한옥마을은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지만, 이처럼 깊은 전주의 역사에 비하면 그리 오래된 동네는 아니다. 마을이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양곡을 수송하기 위해 전주와 군산을 잇는 전군가도가 개설되면서 전주 부성은 풍남문을 제외하고 자취를 잃었다. 그러면서 성 밖에 머물던 일본인이 성안으로 진출해 상권을 형성했다. 이에 반발한 전주 사람들이 풍남동과 교동 일대에 한옥촌을 조성했다. 이것이 지금의 한옥마을이다. 한옥마을 내 이름 있는 한옥은 많아도 100년 넘은 고택이 흔치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인재고택 학인당은 20세기식 개량 한옥이 즐비한 전주 한옥마을 내 민가 중 가장 역사가 깊은 한옥이자 유일한 문화재(전북민속자료 8호)다. 1908년에 지어졌으니 올해로 112살이다. 집을 지은 이는 조선조 성리학자 조광조의 제자 백인걸의 11세손인 백낙중(1882~1930) 선생. 만석꾼이자 전주의 대부호였던 그는 장자 백남혁이 태어난 1905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 2년 8개월 만에 아흔아홉 칸 저택을 완성했다.
궁중 건축 양식을 도입해 지어진 학인당은 구한말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함께 한 공간이다. 일제강점기 설 자리를 잃어가던 이 지역 명창들의 공연 무대로 활용됐고, 해방 이후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요인들이 묵어가는 영빈관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공산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이 무단점거해 사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백낙중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온 이 집은 2007년부터 고택체험 공간으로 일반에 개방되고 있다. 지금은 백낙중의 5대손인 백광제(39) 씨 부부가 운영하며 방문객을 맞고 있다.

구한말부터 근대까지…
110년의 세월이 숨 쉬는 공간

솟을대문 앞에서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현액이 눈길을 끈다. '효자승훈랑영릉참봉수원백낙중지려'(孝子承訓郎英陵參奉水原百樂中之閭)라고 적혀 있다. 고종이 백낙중의 효행을 치하해 승훈랑이라는 벼슬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학인당(學忍堂)이라는 이름은 백낙중의 호 인재(忍齋)에서 따온 것이다.

삐그더억~ 대문 열리는 소리가 정겹다. 안으로 들어서니 본채 앞 마당에 잘 가꿔진 정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연못가에 서 있는 소나무와 진분홍빛 꽃을 피운 배롱나무가 본채와 멋스럽게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다. 마당 한가운데 조성된 연못의 이름은 조선지(朝鮮池). 한반도의 좌우가 뒤집힌 모양이다. 이 집이 지어질 무렵 조선은 이미 일본의 침탈을 받고 있었다. 집을 지은 백낙중은 나라 잃은 슬픔을 뒤집힌 한반도의 모습으로 표현하며 세상이 다시 뒤바뀌어 국권이 회복되길 기원했다고 한다.

지금은 530평의 부지에 7채의 한옥만 남아있지만, 1908년 지어질 당시 학인당은 2천여평의 부지에 지어진 아흔아홉 칸 저택이었다. 이 집을 짓는 데 들어간 공사비가 백미 4천석(8천 가마), 공사에 투입된 연인원은 4천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원을 들여 지은 셈이다.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다. 궁궐 건축을 담당했던 도편수와 대목장들이 궁중 건축양식을 차용해 공들여 지었다. 건축에 쓰인 목재는 압록강과 오대산 등지에서 공수한 금강송이다. 추녀 쪽에서 직선으로 솟아오른 처마나 지붕을 받치는 둥근 도리 기둥 등은 궁궐이나 유명사찰에서나 썼던 기법이라고 한다.

이처럼 대궐 같은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고종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원 연못가에 놓여 있는 임금 왕(王) 자가 새겨진 돌이 이를 말해준다. 백광제 씨는 "6대조 할아버지께서 흥선대원군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며 "고종 즉위 이후 경복궁 중건사업에 도움을 요청해 집안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고, 덕분에 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1 본채에서 내다 본 정원. 2 정원에는 한반도가 뒤집힌 모양의 연못이 조성돼 있다. 3 임금 왕(王)자가 새겨진 돌이 연못가에 놓여있다. 이 집을 짓는 데 고종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4 고종이 내려준 현액에는 백낙중의 효행을 치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5 본채는 창호지가 아닌 유리를 단 여닫이문으로 둘러싸여 있다.

개화기 멋스러움이 더해진
전통 한옥

1 거실 격인 대청마루와 방을 구분 짓는 문
2, 3, 4 본채 내부는 여러 개의 방은 물론, 세면장과 목욕탕, 화장실까지 복도로 연결된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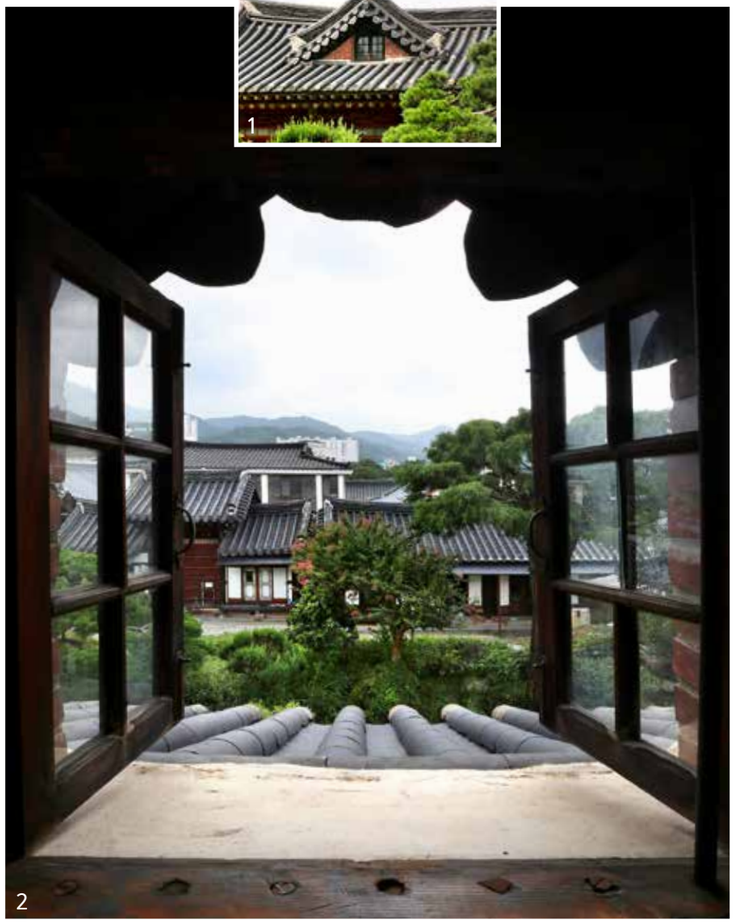
7채의 한옥 중 중심에 있는 학인당 본채는 이 고택 건축의 백미다. 한지가 아닌 수십장의 유리를 단 여닫이문이 커다란 건물 전면을 감싸고 있다. 외관만 봐도 1908년 당시 최신식 건축 기법을 도입해 지었음을 알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거실 격인 중앙의 대청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방은 물론, 세면장과 목욕탕, 화장실까지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천장의 높이는 2층에 가깝다. 7개의 들보를 사용해 칠량 집으로 지어진 본채는 면적이 67평에 달한다고 한다. 보통 한옥의 3채 규모다. 백씨는 "당시 서양에서 들어온 첨단시설인 전기시설과 수도시설까지 도입해 지은 개화기 최신식 한옥"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렇게 큰 집을 지었던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 1900년대 초부터 일본의 내정간섭이 시작되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주 대사습놀이의 명맥이 끊기게 됐다. 이를 안타까워 한 백낙중은 이 집을 판소리

1 대청마루와 방을 구분하는 문을 들어 올려 단자에 걸어주고 방 사이 문을 모두 열면 공연을 위한 넓은 공간이 마련된다. 2 백범 김구 선생이 학인당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찍은 사진 3 백범이 하룻밤 묵어간 백범지실

공연장으로 이용하려 했다. 본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양 옆의 방문을 들어 올리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청 마루와 방을 구분하는 문을 들어 올려 단자에 걸어 주고 방 사이 문을 모두 열어젖히면 여러 개의 방과 마루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여러 명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확보된다. 실제로 이 공간에서는 이 지역 유명 소리꾼들이 모여 소리판을 벌이곤 했다고 한다.

거대한 본채는 여느 고택과 달리 구석구석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무심히 놓여있는 듯한 소품 하나하나에서 남다른 안목이 느껴진다. 미술을 전공한 안주인의 솜씨다. 집안 내 최고 웃어른이 기거했던 안방 앞에는 '백범지실'이라고 쓰인 문패가 달려 있다. 방 안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학인당 마당에서 찍은 사진도 걸려 있다. 백범이 초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전주에 내려와 하룻밤 묵었던 방이다. 당시 백낙중은 자신이 기거하던 방을 기꺼이 내줬다고 한다. 백범지실 옆에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 머물다 간 방인 '해공지실'이 있다.



1, 2 남쪽 지붕 합각부에 난 다락 창문 너머로 앞마당 정원이 보인다.

다락에 올라 추억에 잠기다

본채 구석구석을 안내하던 백씨가 자신이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며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다락이었다. 굳게 잠긴 문을 열고 허리를 숙인 채 다락으로 올라가는 순간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할머니 몰래 다락에 숨어 놀곤 했던 시골 외갓집 추억이다.

학인당의 다락은 110년 세월을 오롯이 간직한 보물창고였다. 백씨의 증조할머니가 손수 수를 놓아 혼수로 들고 왔다는 병풍, 학인당을 짓게 된 뜻을 새겨넣은 현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흑백사진과 옛 문헌들… 조상의 손때가 묻은 유물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다락의 구조도 독특하다. 천장이 높은 만큼 2층으로 되어 있다. 한옥에서는 보기 힘든 구조다. 채광과 환기를 위해 남과 북에 하나씩 합각부를 만들어 각각 창을 낸 점도 독특하다. 덕분에 다락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목을 뻗어 밖을 내다보니 앞마당의 정원 너머로 솟을대문과 사랑채가 한눈에 들어온다. 집주인이 이곳을 왜 가장 좋아하는지 알 것 같다.

3 학인당 투숙객에게 다음날 아침 제공되는 차와 다과 4 객실 한편에 마련된 다실
5 2층 구조의 다락방은 조상의 손때가 묻은 유물이 가득한 보물창고다.

본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인이 기거하던 살림집이었지만, 지금은 연회나 촬영을 위한 장소로 대관 되거나 손님이 묵어가는 객실로 사용된다. 다만 각각의 방이 아닌 본채 전체를 빌려야 해 소규모 투숙객이 묵기에는 다소 가격 부담이 있다.

일반 투숙객은 주로 사랑채나 3개의 객실로 이뤄진 별당채를 이용한다. 모든 객실에는 욕실 겸 화장실이 딸려 있으며, 침구 시트는 매일 교체돼 쾌적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별당채의 서쪽 끝 객실 한편에는 아기자기한 다실이 딸려 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 후원의 풍경을 감상하기에 좋다. 정원이 워낙 잘 가꿔져 있어 어느 객실을 택해도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솟을대문 동쪽에는 단청 체험, 다례 체험 등 각종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예약하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설명을 들으며 고택 내부를 투어할 수 있다.

“고택의 밤은 더없이 아름답다.
창호지로 스며드는 달빛과 그윽한 풍경 소리가
운치를 더한다.”

3

환란 벗어나 피안(彼岸)의 세계로…

전등사 한옥 템플스테이

'강 저쪽 둔덕'이라는 뜻을 가진 불교 용어 '피안'(彼岸)은 산스크리트에서 유래된, 이쪽 둔덕을 뜻하는 차안(此岸)의 상대어다. 현세를 차안(此岸)이라 한다면 피안은 현세를 벗어난 경지, 즉 해탈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잠시나마 환란의 세상을 피하고 싶다면 수도권에 있지만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강화도 전등사도 나쁘지 않다. 신라 때 축성된 정족산성이 감싸듯 둘러싸고 있는 전등사에는 탁 트인 전망이 매력적인 5채의 독립된 한옥으로 구성된 전등각이 있다. 한옥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사찰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1 정족산성 동문 2 전등각에서 바라본 정족산성

1천600년 역사 지닌 사찰의 한옥 템플스테이

'출가'(出家)라는 단어에는 번뇌에 얽매인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 생활에 들어간다는 뜻도 있다. 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환란의 시기에는 고요한 산사로 들어가 모든 번뇌로부터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 수도권 인근 강화도에 딱 맞는 곳을 발견했다. 1천6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등사에 한옥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는 전등각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체험해보기로 했다.

전등사에 도착하니 주차장이 동쪽과 남쪽에 있다. 동문과 남문 두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서는 동문으로 올라가야 한다. 전등각 템플스테이 고객은 입장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방문객 대부분은 아래쪽 동문 주차장에 주차한 뒤 걸어 올라가야 하지만, 템플스테이 참여자들은 동문 주차장을 지나쳐 훨씬 위쪽까지 차를 몰고 올라갈 수 있다. 꼬불거리는 좁은 산길을 올라가면 두 번째 주차장을 만나는데, 이곳마저 지나쳐 경사가 진 길을 올라갈 수 있다. 언덕 위쪽에는 거대한 돌 성벽 아래 승용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문이 있다. 동문이다. 이곳을 지나면 전등사 경내로 들어갈 수 있고 문을 앞두고 우회전을 하면 한옥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는 전등각 주차장이다.

능소화가 핀 담벼락 위에서
전망을 즐기는 모녀

가운데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인도를 두고 한옥 5채가 양옆으로 흩어져 자리 잡고 있다. 가장 먼저 단아한 한옥 지붕 위로 파란 하늘이 보였다. 걸어 올라가니 잘 빠진 한옥 왼편으로 탁 트인 강화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오른편으로는 조금 전에 보았던 돌성벽이 요새처럼 서 있다.

바깥 담벼락에는 주황색 능소화가 피어있고 그 뒤로 파란 하늘 아래 꼿꼿하게 솟은 소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다. 건축물과 조경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옥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조금 있으니 사찰음식 전문가인 사찰음식·전등각 운영팀장 정주미 씨 등 직원 두 명이 이부자리 등을 챙겨준다.

고요함에 물든 시간… 스트레스는 저 멀리

전등각 바깥에서 능소화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에 열중하는 한 모녀를 만났다. 영국에서 유학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귀국한 손미영 씨와 엄마 김민희 씨였다. 김씨는 딸 미영씨가 귀국 후에도 날마다 갇혀있던 일상에 갑갑함을 호소하자 템플스테이를 신청했다고 했다. 한옥 템플스테이 고객은 모녀와 필자뿐인 데다, 동선이 같아 일정을 함께 하기로 했다.

전등사는 정족산성이라는 큰 산성 내에 건축된 유일한 사찰이다. 전등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풍경은 이 정족산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족산성은 한반도 내륙을 노리는 적대 세력의 원정 상륙을 막는 방어기지로 효과적이었다. 실제로 1866년 병인양요 때 양현수 장군이 강화도에 상륙하려는 프랑스군을 격퇴했을 정도로 방어에 유리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족산성은 이로써 서구열강의 침탈을 막아낸 최초의 장소가 됐다.

1 정족산성 위를 걷는 모녀 2 전등사 경내 3 범종 타종 체험 4 전등사 경내의 고양이

우선 탁 트인 전망으로 이름난 동문 성벽 끝쪽으로 갔다. 아름다운 성벽을 배경으로 높다랗게 서 있는 이곳 역시 방어의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다. 수령이 족히 1백년은 돼 보이는 소나무 사이로 빛이 쏟아졌다. 모녀는 행복한 듯 이곳저곳을 다니며 기념촬영을 했다. 맨 끝쪽에서는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좁은 해협이 한눈에 들어온다.

잠시 쉰 뒤 전등사 내부를 둘러봤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절로만 알았는데,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창건된, 1천600여 년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절이다. 아도화상이 진종사(眞宗寺)라는 절로 창건했다. 이후 고려 충렬왕 때 전등사로 이름이 바뀌었고 1614년 광해군 6년에 다시 불이 나 전소됐다. 7년 뒤인 1621년 상량식을 열고 중창을 완료했다.

저녁은 원래 공양을 하기로 했지만, 김씨 모녀 둘 다 저녁 식사를 하지 않기에 건너뛰고 범종 타종 체험을 하기로 했다. 이것은 모녀가 유일하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등사 템플스테이에는 체험형과 휴식형 2가지가 있는데, 체험형은 새벽 예불을 포함해 여러 번의 예불과 울력 등에 모두 참여하지만, 휴식형은 저녁 범종 타종 체험 정도만 참여한다. 먼저 스님들이 목어를 두드린 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차례대로 범종을 타종한다.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지만 직접 타종을 하니 소리가 엄청나게 컸다. 미영씨는 이 장면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영국의 친구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신이 난 표정이다.

1 하늘에서 바라본 정족산성과 전등사. 정족산성이 전등사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쪽은 산성의 서벽치
2 스님과 담소하는 모녀 3 정족산성 서벽치에 올라 석양을 즐기는 템플스테이 고객

전등사 경내에서 일반 템플스테이를 하는 사람들 몇몇이 자신의 타종 순서가 끝나자 서둘러 산으로 향했다. 지금쯤이 일몰을 감상하기 최상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스님 한 분이 따라나섰다. 그런데 김씨가 숨을 헐떡이며 뛰듯이 앞서 올라간다. 이유를 물으니 "왠지 종소리가 끝나기 전 일몰을 맞아야 할 것 같아서"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종소리는 계속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리고 있었다. 스님께 여쭤봤더니 모두 33번 종을 친다고 한다. '그렇다면 승산이 있다.' 필자도 서둘러 카메라 가방을 멘 채 산을 뛰다시피 올라갔다. 운이 좋았는지 저 멀리 서쪽 하늘에 석양이 막 시작되고 있었고 33번의 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만큼은 종이 우리를 위해 울리고 있었다. 종소리와 석양이 공동 연출하는 풍경은 모든 이를 압도했다.

하늘 높이 드론을 띄워 보니 일행이 서 있는 곳은 거대한 성벽의 튀어나온 부분이었다. 서쪽에 이빨(齒)처럼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곳을 정족산성의 서벽치라고 한다. 서쪽 하늘 너머 높다란 산이 보이고 때마침 낀 구름 탓에 그 밑으로 높이를 알 수 없는 산들이 겹겹이 보였다. 강화도가 결코 작은 곳이 아님을 깨달았다. 모두 고른 숨을 가다듬으며 석양의 고요함에 물들어갔다. 코로나가 주는 스트레스가 저만치 달아난 순간이었다.

1 사찰음식·전등각 운영팀장 정주미 선생이 사찰음식을 내고 있다.
2 정성스레 준비된 전등각 사찰음식 정찬

1천600년 맥을 잇는 사찰음식

어둑어둑해진 길을 헤치며 숙소로 돌아온 뒤 이부자리를 폈다. 전등사에서 자체 제작한 이불은 손님이 바뀔 때마다 커버를 교체한다. 이불은 보송보송했다. 반쯤 열어놓은 모기장에서 신선한 가을 공기가 전해졌다. 다음날 아침 가을비가 조금씩 내렸다. 전등사만의 사찰음식 정찬을 만나는 날이다. 일반 템플스테이 이용자들은 공양간에서 식사하지만 전등각 템플스테이 손님은 아침과 저녁 사찰음식 체험관에서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전날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은 탓인지 아침 식사가 무척 기대됐다.

첫날 잠자리를 정리해준 정주미 선생은 11년 동안 사찰 음식을 연구해 온 사찰음식 전문가다.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명장2호)으로부터 10년간 사찰 음식을 배웠다. 전등사로 온 지 1년쯤 됐다고 한다. 정 선생은 1천600년 사찰 음식의 맥을 잇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2

1 전등각 사찰음식 체험관 2 표고버섯과 시금치, 당근으로 양념한 야채두부찜 3 도토리묵 전
4 화사한 향을 느낄 수 있는 아카시아 꽃 튀김 5 노랑 고구마 전병

개발하고 있다. 식당은 고즈넉하고 고요했다. 조금 기다리니 국과 밥, 반찬이 한꺼번에 차려졌다.

전통적으로 강화도 사람들이 먹어온 노랑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전병이 나왔다. 당근과 표고버섯, 새송이, 호박 등이 속에 들어가 있다. 3년 된 묵은지와 호박 마(麻) 소박이 등 특색있는 반찬들이 잇따라 나왔다. 절에서 담근 3년 된 묵은지도 있다. 묵은지는 1년 된 것과 2년 된 것, 3년 된 것 등을 번갈아 낸다고 한다. 샐러드에도 강화도 특산물인 인삼이 들어가 있다. 강화도 전통음식인 순무 김치도 빠질 수 없다.

정 선생은 전등각 템플스테이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재료 대부분이 절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라 했다. 전날 저녁 정 선생이 전등각 내부 텃밭에서 고추를 따던 모습이 떠올랐다. 전등사에는 절 소유의 농장이 있다. 농사를 짓는 팀이 따로 있다고 한다. 인근 산에서 따 온 제철 산야초도 계절마다 제공된다. 봄철에는 두릅과 가죽 잎, 취나물 등 산나물이 음식 재료로 쓰인다. 특히 연밭이 있어 연잎 차와 연근 등으로 만든 음식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송이장아찌와 산초장아찌가 한 그릇에 담겨 나왔는데 맛이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을 냈다. 고수 도토리묵 전도 특색이 있었다. 도토리묵을 전으로 만든 뒤 위쪽에 고수로 마감을 했다. 고추장으로 맛을 낸 버섯강정도 특이했다.

정 선생의 사찰음식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것이 특징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카시아 꽃 튀김이었다. 아카시아는 외래 식물이지만, 향이 좋고 국내 꿀 대부분이 아카시아 꿀이라 할 만큼 꿀이 많이 생산되는 수종이다. 아카시아 튀김이라니… 한 입 베어 문 순간 바사삭하는 소리와 함께 진한 아카시아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이쯤 되면 사찰음식을 넘어서 예술품이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식사 후 어슬렁거리다 야외 카페인 죽림다원이 눈에 들어왔다. 때마침 해가 나왔다. 찬란한 가을 햇살 아래 전통차를 한 잔 마시고 싶어졌다. 차와 함께 이곳의 대표 메뉴인 연꿀빵을 주문했다. 연근과 마, 통팥이 어우러져 구수한 맛을 냈다. 전등각 정찬과 죽림다원 연꿀빵이 전등사를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하산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

6 죽림다원에서 차를 맛보는 모녀
7 죽림다원에서는 연꿀빵과 전통차, 카피, 팥빙수 등을 즐길 수 있다.